



# 광야의 소리

## 알버커키한인연합감리교회

KOREAN UNITED METHODIST CHURCH  
IN ALBUQUERQUE

3715 Silver Avenue, SE, Albuquerque, NM 87108

광야에 외치는 자  
소리가 있어  
가로되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참경을 평탄케  
하라.

발행인: 김학수

제 19 호

1994년

여름 가을호

\*교회설립 기념주일 설교\*

### 내가 성전에서 깨달았도다

(시편 73편 1-17절)

담임목사 김 학 수

오늘은 본 교회 설립 12주년 기념주일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본 교회를 설립케 하시고 계속 12년동안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는 규모가 작든지 크든지 교회가 꼭 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지난 12년을 회고하면 우리 교회가 비록 작은 한인사회에 있는 작은 교회이지만 교회의 소중한 사명을 수행하기 위하여 힘써 왔습을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저는 본교회 담임목사로서 12년전 본 교회를 설립하는 귀한 사업에 동참하였던 창립교우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분들 가운데서 오영집 사, 김순자 집사, 김성호 집사님등 세분은 지금까지 본 교회를 힘써 섬기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2년간 본 교회에 출석하며 신앙생활을 하며 교회를 섬기다가 타지역으로 이사가신 많은 교우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2년동안 본 교회에서 새롭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신 교우들, 그리고 본 교회에서 믿음의 큰 성장을 이루고 떠나 가신 교우들이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많이 있었음을 또한 기쁘게 생각합니다. 더욱이 지금 본 교회 식구가 되셔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정성스럽게 본 교회를 섬기

고 계시며 오늘 이 기념 예배에 참석하고 계시는 교우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설립기념주일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담임목사로서 교우 여러분께 무엇보다 먼저 “우리 모두 교회 사랑하는 마음을 새롭게 합시다” 하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내게 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살아 있다는 분명한 증거가 됩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 모두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행동 해야 하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은 교우들께서 모두 하나가 되어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결코 교회사랑에 동참하지 아니하고 방관자로 머물러 있으면 아니됩니다. 교회 활동에 방관자가 됨은 근원적인 잘못된 신앙생활 태도입니다. 교회사랑은 결코 소수의 교인들만이 맡아하는 수고여서는 아니됩니다. 우리 모두 교회설립주일은 맞아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의 선교사업을 소중히 여겨서 몸으로, 시간으로, 재물로, 또는 재능으로 정성스럽게 교회를 섬기는 교우들이 되려는 진실되고도 굳센 다짐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누구나 겪고 큰 많은 문제들을 직면하게 됩니다. 우리가 당면하는 일들 가운데는 쉽게 해결되는 것들도 있고 또 매우 어렵게 힘써 해결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한편 아무리 힘써도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당면한 상황들을 극복하기 위하여 자기 지식과 경험을 총 동원하여 노력하곤 합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역량의 한계를 느낄때가 많이 있

습니다. 그래서 나의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것을 탄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이 땅위에서 온갖 문제로 몸부림치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필요할때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새로운 분별력과 안목으로 당면한 어려운 문제들을 신앙인답게 해결할수 있도록 귀중한 능력을 주십니다.

시편 73편은 아삽의 간증시입니다. 아삽은 다윗과 솔로몬왕 시대에 성전 찬양지휘를 담당했던 경건하고 신실한 교회 지도자였습니다. 아삽은 당시 생활주변에 만연했던 불합리한 현상들을 보면서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옛날이나 현재나 다름없이 사회가 타락하면 악인들이 잘 살고 의로운 사람들이 어렵게 사는 껴꾸로 된 사회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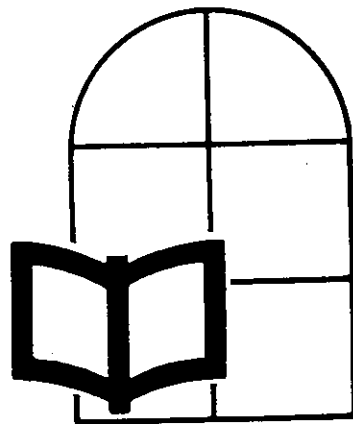
아삽은 당시 타락한 이스라엘 사회현상의 이같은 현실에 신앙적인 큰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선하신 분이신데 이찌하여 세상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현실 모습들이 많은가 하는 깊은 갈등에 빠져 있습니다. 실상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고난은 영원한 미 해결의 문제인 것 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던중 어느날 성전에서 예배드리던 아삽은 큰 깨달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갈등을 겪고 있던 악인의 형통이란 문제에 대한 밝은 해답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내가 어찌하면 이를 알까하여 생각한즉 내게 심히 곤란하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시편 73:16-17). 아삽은 성전밖에서 도저히 깨달을수 없어 몸부림치던 어려운 문제를 성전에서 분명하게 깨닫고 크게 기뻐하며 간증하고 있습니다.

아삽의 깨달음은 이런 것입니다. 성도들은 악인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의인들이 오늘 겪고 있는 고통을 보고 낙심치 말아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성도들은 한 인

생의 마지막을 볼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이 세상 육신의 종말만이 아니고, 더 멀리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보여질 마지막 모습까지 볼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볼수 있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수 있는 지혜를 성전을 즐겨 찾아나와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경건한 성도들에게 은혜로 주심을 아삽은 분명하게 깨닫고 기쁨이 넘쳤습니다. 아삽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삶은 망하는 자의 길이고,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삶은 복 받은 자의 길임을 깨닫고 시편 73편의 마지막 간증문으로 기록하였습니다.

성도들은 계속하여 성전예배를 통하여 깊은 깨달음을 경험해야만 합니다. 진실한 성도들은 누구나 성전에서 많은 깨달음을 얻습니다. 성전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떤곳과도 전혀 다른 구별된 장소입니다. 성도들이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기도드리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귀중한 선교사업에 항상 힘쓰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런고로 하나님께서는 즐겨 성전을 찾는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신령한 지혜를 선물로 주시고 계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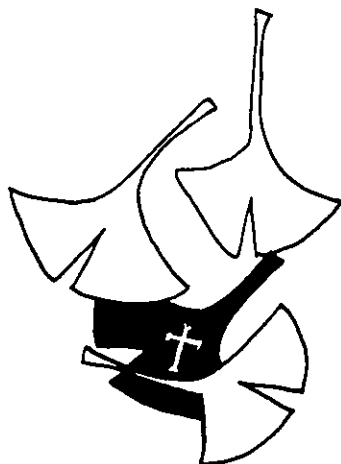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깨달음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전에서의 깨달음은 결코 개인적인 이기적 욕심을 충족시키는 것같은 탐욕적인 간교한 깨달음이 아닙니다. 오직 성전에서의 깨달음은 주님안에서의 깨달음이요, 신앙적인 깨달음입니다. 근원적으로 다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신앙적인 큰 깨달음입니다. 곧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근원적인 깊은 깨달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은총에 대한 근원적인 깨달음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소명과 섬김에 대한 큰 깨달음입니다.

둘째는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본성과 인간됨의 참된 의미에 대해 큰 깨달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됨과 교만함과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당면한 삶의 문제들을 근원적인 안목으로 이해하고 해결케 할수 있는 깨달음을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무식하게 보여지는 교육받지 못한 성도들도 성전에서 깨닫는 큰 지혜 때문에 세상의 유식한 사람들 보다 인생을 살아가는 더 큰 지혜를 갖고 있는 슬기로운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고로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잠언 9:10)고 밝히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성전을 떠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허락하시는 신령한 깨달음을 경험할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원이 항상 있어야 합니다. 성전에서의 깨달음의 경험이 계속될 때만 성도들의 신앙도 계속 성장할수 있게 됩니다.



## 주님전에

김수영 집사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저희 교회 설립 12주년을 기뻐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의 뜻이 있으셔서 저희 감리교회를 이곳 알버커키에 세워주시고, 12년동안 저희들에게 영의 양식을 허락해 주시며, 헤아릴수 없는 축복 내려 주신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지금도 몇몇 창립 신도들 설립할 때의 용기와, 담력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며, 봉사하며, 헌신하고 있습니다.

이 기쁘고 즐거운 성일을 맞아서 지난 12년간의 지나온 발자취를 생각해 보며 저희들 머리 숙여 기도 합니다. 저희는 주님을 앞장 세우지 못하고 저희들 마음대로 세상 것에 맞도록 행했던 것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기 보다는 이웃을 미워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웃을 위해서 봉사 하기보다는 이웃을 헐뜯기도 했습니다.

저희들은 정말로 죄인들임을 자복합니다. 베드로의 죄를 용서해 주셨든 주님! 저희들도 용서해 주시고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사업에 “큰 그릇”들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일꾼

이 부족한 이 시대에 저희 교인들을 일깨워 주셔서 적재 적소에서 기쁨으로 봉사 할수 있도록 감동하사 충성과 헌신을 다짐하는 시간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분부하신 모든 계명들을 성실히 실천하고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다 되도록 복 내려 주시기를 기도 합니다.

저약이 극심하고 험난한 말세에 주님의 뜻을 독바로 바라보고 일로 전진하는 그리스도의 군병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학교에서 수고하시는 교사님들 사명을 주셨으니 끝까지 큰일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것 허락해 주시고 또한 여러 기관에서 봉사하고 있는 교우들 다 힘 내려 주시어서 주님의 높은 뜻을 이룰 때까지 성령으로 능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우리들을 위해서 영의 양식을 능 먹여 주시고 저희 하나 하나를 위해서 능 기도해 주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그 가정 특별히 건강 지켜주시고 능 필요한 것으로 채워 주시기를 기도 하옵나이다.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하였사옵나이다.

아멘!



## 현대를 위한 욕의 증언

가나안 담임 목사 김종일

아래의 글은 지난 6월 19일에 가졌던 부흥집회의 말씀을 요약한 글입니다.



성경본문: 욕기 40:6-7 & 42:1-6, “여호와의 말씀이 욕에게 이르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욕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이까 내가 스스로 알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삽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뵈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한하고 터쫓과 재 가운데서 희게하나이다.”

요즈음에 2천년대가 가까워 오면서, 2천년대를 향한 교회와 한국, 21세기를 위한 미래준비 위원회등 여러가지 기구들이 생겼습니다. 저는 특별히 2천년대를 향한 우리교회와 우리민족의 실현되어야 될 꿈을 이 욕기에서 찾아 보고자 이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욥기 1장에 나오는 것같이, 욥은 풍유한 재물과 많은 자녀를 갖고 또 많은 종들을 거느린 행복한 가장이었습니다. 또한 욥은 대단히 의로운 사람이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물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욥은 외면적으로는 부유하고 훌륭하며, 내면적으로는 정직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참으로 귀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이렇게 귀한 사람에게 갑자기 비극이 찾아 옵니다.

그 비극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욥이 믿음을 통하여 실용적으로 얻는 것이 있으니까 믿는 것이 아니겠느냐. 개인적인 향상과 만족, 그리고 마음의 정신적인 평화가 그 믿음 때문에 얻어

지는 것이 아니겠느냐. 욥의 소유와 사랑하는 가족과 넘치는 건강과 평화를 모조리 빼앗아 보아라. 그래도 그가 하나님을 믿겠는가? 이 것이 욥과 하나님의 사이를 갈라놓기 위하여 획책한 사단의 계획이었습니다.

또 사단은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어떠한 것이며 사람에게 칭찬도 받지 못하고 온전히 고독하고 고난속에 들어도 과연 그 욥이 하나님을 믿겠는가? 만약에 그렇다면 그는 참 신앙인이다.

정말 우리가 신앙을 가진다는 것을 종교속에 도피하는, 종교를 하나의 도피성으로 알고있는 성향이 대단히 많은 요즈음에 비추어 본다면 이 욥기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사단과 하난님이 시합한 내용이 이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단에게, “네가 욥의 생명만은 건드리지 말고 네가 할수 있는 대로 해보아라 하셨던 것입니다. 결국 욥에게서 한가지 한가지씩 박탈됩니다. 결국에는 욥 자신의 알몸만 남았는데 그 알몸마저도 병이 들어서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독한 부스럼 종기가 생겨서 기왓장으로 긁지 않으면 안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 욥이 인간으로는 마지막 사람인 아내가 와서 이르기를 자기의 순정을 지키느니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외쳐됩니다. 이일로 아내와도 인간관계가 마지막으로 단절됩니다.

그 다음에는 몇명의 친구가 찾아와서 위로와 비난을 동시에 하며 욥을 괴롭힙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욥의 비극은 이러한 것들이 아닙니다. 물론 인간으로서는 견디기 힘든 고통을 당하고는 있지만 이 고통을 당하는 정당한 이유가 하나님에게서 부터 나왔다고 한다면 그가 그 고통들을 견디어 낼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들의 죽음, 이 것도 그 어떠한 이유가 있었더라면 참겠는데, 아무 이유없이 자녀들이 죽어갑니다. 욥이 그렇게 심한 고통을 당하는 이유를 도무지 알수 없었습니다. 요즈음 말로하면 이유없는 비극이지요. 괴로움이며 부조리한 고난입니다.

욥은 24절에서 외치기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허물된 것은 깨닫게 하소서. 그러면 내가 잠잠하리라.” 욥은 자꾸 하나님께 물어 봅니다. 하나님 내가 당하는 고난은 왜 입니까? 하나님, 내가 이 고난들은 왜 이유없이 당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왜? 왜? 하며 자꾸 묻습니다. 나중에는 하나님이시여 왜 내가 태어났습니까? 하며 자기가 왜 태어 났는 지도 저주합니다. 참 우리가 생각해 봐도 비참한 지경입니다. 그래서 이 욥의 절망은 요즈음 말로 “허무주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욥에게는 살아 있다는 그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이유와 원인도 모르게 절망지경에 이르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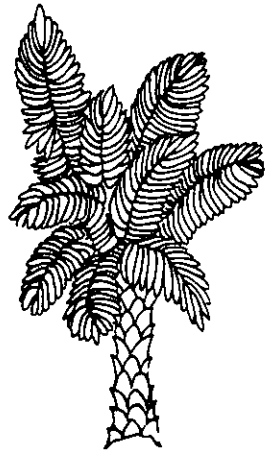
오늘의 세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애매하고 이유없는 고민이 많이 닥쳐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시련을 우리에게 주시며 무엇때문에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 하나님을 향한 울부짖음이 많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욥에게 또 하나의 문제가 있었습니까. 욥이 이렇게 고난을 당했을 때 도대체 욥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어디에 가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부르짖어도 대답하시지 않는 하나님. 그런데 이 것은 욥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닙니다. 지난 40년간 천만의 이산 가족들이 눈물을 흘리며 왜 이런 고난을 주시는냐고 울부짖지만 아직도 응답이 없습니다. 6.25전쟁같은 무서운 시련

속에서도 응답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눈물로 간구하는 우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계는 점점 허무주의에 빠져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응답도 아니하시고 대답해 주시지 않으니 어떻게 된 것인지 갈피를 못잡고 있습니다.

김은국이라는 재미작가가 있습니다. 기독교 가정에서 엄격한 교육을 받고 자랐습니다. 이 사람이 대학 철학과 2학년때 6.25전쟁이 일어나 그는 군대에 종군하게 되었습니다. 평양으로 진격해 가는 중에 널부러진 수많은 시체와 잿더미가 된 폐허를 바라보며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하는 의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평양에서 인민군 소령을 잡았는데 이 사람은 전문적으로 성직자들을 학살한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는 “순교”, “기독교”, “천국”, 이런 것들을 비웃으며 “내 앞에서는 성직자들이 개 같이 죽어 갔다” 라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김은국은 머리가 발작 뒤집혔습니다. 그 뒤에 ‘미국에 와서 리차드 김이라는 필명으로 “순교자”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서 그는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 계시도 소용이 없고 잠시 피난민을 위로하기 위함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소설이 역수입되어 한국 사회와 교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또 앤도 슈샤큐의 “침묵”이라는 소설이 있는데 도쿠가와 막부 시대의 천주교 박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죽어가고 하나님의 성직자가 시련을 당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냐고 항변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 모든 상황들이 옴의 상황과 같은 틀아래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 옴의 문제는 바로 이 시대의 우리의 문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현대가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다고 혹은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인생의 깊은 성찰이나 진정한 생의 의미를 상실해 버린 상황속에서 하나님의 지배는 어떻게 받는 것인지 진정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때에 옴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옴은 온갖 고통과 시련의 와중에서 인간적인 해결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나의 영혼이여 하나



님을 기다립니다”라고 외쳐됩니다.

옴의 반항은 암흑중의 희망이요 복종이며 고통중에 있는 옴에게는 어떤 의미로는 위대함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인생에서 하나님의 대답을 계속 구해야 합니다. 우리들의 이유없는 반항을 진정으로 이 옴이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데서 외쳐댄 옴의 비극으로 받아 들여야 합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옴에게 폭풍 속에서 응답 하십니다 (40:6). 폭풍 가운데서 대답하셨다는 것은 앞길이 막힌 옴에게 단순히 위로하기 위한, 어려울때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당당히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답게 고매한 품격과 자유를 가지시고 대답하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 인간에게 양보하시지 않는다는 성경의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어린이가 투정부리는 것을 받아 주시듯 단순하고 간단한 위로와 도움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옴을 비난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칭찬을 하십니다. 단순히 옴을 불쌍히 여기시고 야박하게 취급하시는 것이 아니라 “옴아! 내가 네게 준 자유 의지를 가지고 대답 해 보아라. 나는 너를 불쌍히도 여기지 않으며 강요도 하지 않는다. 너는 대장부 처럼 당당하게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인간으로서 이 하나님의 요구에 전심적으로 대답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신앙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신앙을 너무 낭만적이며 감상적으로 생각합니다. 여기 옴기에서 말하는 신앙이란 폭풍 속에서 물으시는 하나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자유롭게 대

답하라고 요구하시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네” 하고 응답하는 것을 신앙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어려울때 도움과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을 찾지만, 성경의 대답은 그런 나약하고 연약한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폭풍 속에서 당당하게 폭격과 자유를 가지시고 당당하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음에게 이런 식의 대답이 유익하나 아니냐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음의 간절히 찾고 바라던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이 엄청난 중량과 권위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것은 음 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현대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잘못으로 타락해서 절망의 폭풍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임하셔서 음에게 물으셨던 물음을 다시 던지십니다. 음의 대답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대답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음을 가르치실때에 한가지 놀라운 것은, 어떤 신학자나 학자같이 강의를 하신 것이 아니라 마치 유치원 학생들을 데리고 동물원에 가서서 동물을 가르쳐 주시고 설명해 주시는 유치원 선생님 같은 모습으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하마를 볼지어다. 다 내가 너를 지은 것같이 그 것도 지었노라” (41장 1절) “내가 능히 낚시로 악어를 낚을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하마같이 힘은 세지만 모양도 없고 균형이 잡히지 않은 우스운 동물도 40장 19절에서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물중에 으뜸이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20절에서 “들짐승의 노는 산은 그들을 위해 식물들을 내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얼마나 감동이 되는 말씀입니까?

또한 요한복음 9:1-3의 말씀에서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저의 죄니까 저의 부모의 죄니까 아니면 누구의 죄니까? 물었을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누구의 죄도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얼굴의 생김새나 학문의 많고 적음이 무슨 상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 창조하셨다니 얼마나 기쁜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창조에는 인간이 헤아릴수 없는 넓고 깊은 큰 뜻이 있습니다. 이 창조물 하나가 왜 존재하는지, 왜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지 인간이 그런 의미를 부여할수 있겠습니까? 더우기 하늘과 땅이 있고 밤과 낮, 4계절의 변화들에 인간이 각각 의미를 부여할수 있겠습니까?

음이 42장째에 오면 고백을 시작합니다. “...이젠 만족합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만났으니, 하나님께 절대 의지하고 어떤 임시 방편적인 도피가 아니라 자기의 실족속에서 참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하여 볼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 음은 말합니다. 음의 이 말을 현대에서 해석해 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시다 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내신 이가 예수님이십니다. 이제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보는 하나님으로 만나야 합니다. 음은 거기에서 대 만족과 하나님을 향한 강한 믿음을 얻었습니다. 그 때에 자기 가족이 당한 일과 자기에게 닥쳐 왔던 고통스런 일들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고난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들이 이땅위에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장차 쓰시고자 하시는 뜻에 따라 그러한 일들을 겪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것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가도 기쁨이요 와도 기쁨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여호와 하나님의 그 뜻과 섭리에 따라가리라는 신앙고백을 하며 용기와 기쁨과 전진만이 있는 믿음의 장부들이 다 되실 줄 믿어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 형제간의 우애

이 옥 주 집사

지난 6월말에 우리 온 가족이 14년만에 한국을 방문하고 일가 친척을 만나서 행복한 시간을 가졌었다. 서울의 거리는 나에겐 도저히 방향 감각이 서지 않을 정도로 크게 변해 버렸다. 안내자 없이는 다닐수가 없을 정도였다.

아들, 딸, 며느리, 사위, 손자들과 함께 모두 8명의 일개 분대 병력이 가게 되니 여행을 떠나기 전에는 이런 저런 근심으로 내 마음은 불안했다. 그 중에 제일 큰 걱정은 우리 아이들이 한국말이 서툴고 며느리와 사위는 미국 아이들이고 그동안 자라온 사회 문화의 배경의 다름으로 인해서 혹시라도 한국에 있는 가족이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거부감정을 느낀다면 우리 아이들이 한국에 대해서 가졌던 아름다운 꿈이라도 깨어질까 염려 되었었다. 비슷한 나이의 사촌이 있지만 언어의 장벽때문에 형제간으로서 서로 뜻 깊고 재미있는 재회가 될수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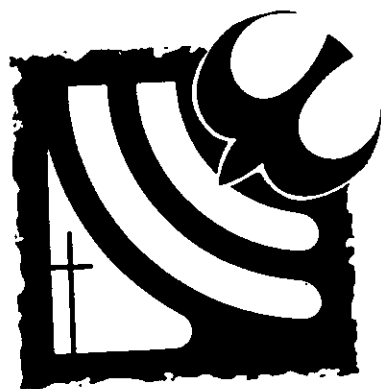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서울에 도착하였다. 마중 나온 친척들을 보면서, 모두 너무나 반가워서 말이 필요없었다. 서로 손잡고 쳐다 보며 몰라 보게 변한 서로를 다시 보며 사랑과 기쁨으로 충만한 재회가 되어 이제까지의 모든 근심 걱정은 사라졌었다. 함께 만나며 지났던 이주일 동안 우리 아이들과 그들의 사촌끼리 특별한 불편없이 서로 의사 소통하며 뜻깊은 만남의 시간을 가질수 있었다. 14년간의 시간과 거리의 장벽이 있었다 해도 같은 핏줄을 이은 형제라는 것 하나 때문에 사랑과 이해와 양보가 있음을 경험하였다.

참으로 보람있고 아무런 사고 없는 여행이 되게끔 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행을 마친후 이곳 알버커키 우리 한인 연합감리교회를 생각해 보았다. 일찌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이 교회를 이곳에 세워 주신것을... 오직 한분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우리 교우들... 예수님의 피로 구



원받은 한 형제간이 아닌가? 서로 서로 형제간에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댓가를 바라지 않는 넓은 사랑을 나누며, 서로 이해하며, 서로 존경하며, 이 알버커키의 작은 한인 사회에서 우리 하나님 교회를 위해 일해 간다면 우리 감리교회는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항상 충만하며 하나님께서는 저희들과 항상 함께 하실 것이라고 생각했다.

우리를 지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항상 감사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도록 늘 힘써도록 하자.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10절,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를 기억하며 늘 행하도록 하자.



심 방

김성호집사 역



아래의 글은 “Interpreter”지의 1994년도 1월호에 실렸던 “Visit from House to House”라는 글을 정리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마태 4:23). 이 말씀은 예수님의 첫 전도 여행에 대한 것으로, 이 말씀에 나타난 것 같이, 예수님의 목회는 선언과 가르침과 병고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한다는 복음을 선포하며 보여주는 사업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기독교 교회에서는 목회자와 일반 성도들의 심방을 최우선적인 봉사 사업으로 꼽아 왔습니다.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명하시기를 복음을 전파하며 병든자를 고치라고 하셨습니다. (마태 7:7-8).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셨을 때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우리들과 일대일로써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사마리아의 우물가에서 물을 길고 있던 한 여인과 말씀을 나누셨으며 (마태 4:1-42), 무덤사이에 다니던 악령들린 사람과 만나기도 하셨으며 (마가 5:1-20), 어떻게 해서 그가 여리고의 삭개오의 집에 들어 가셨는지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누가 9:1-10). 또한 베드로의 장모, 아이로, 바리새인 시몬, 나사로와 그의 자매들인 마리아와 마르타등도 그들의 집에서 예수님과 직접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언제나 예수님께서서는 개개인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시어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보살핌을 선포하시고 몸소 행하시었습니다. 그 이후 오늘날에 이르기 까지, 심방은 교회모임에서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사업이 되어왔습니다. 조오지 스위지 (George Sweazey)는 그의 저서 “전도인으로서의 교회”에서 “대화는 전도의 방법중에서

항상 으뜸가는 수단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나, 목회자가 우선적인 심방자가 됩니다. 지금도 안수 받는 이들이 대답해야 하는 질문이 있는데, 그 것은 “당신은 집집마다 심방을 자주 다니겠습니까?” 하는 것 입니다. 그렇지만, 현대의 생활문화의 변화는 목회자들의 심방에 제약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전의 목회자들은 하루중 오후 내내 심방을 다녔었지만, 지금은 많은 가정들이 맞벌이를 하고 있어서 오후에 방문할 집에 사람이 많이 없으며 또한 전화로 통화하는 전화 심방에도 문제점이 대두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목회자의 심방 횟수가 출석 교인의 수와 비례한다는 등식은 더 이상 적용하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그러나 한가지 분명히 밝힐수 있는 것은 심방을 게을리하는 교회는 교회자체가 하나님의 자녀들의 하나의 공동체라기 보다는 컨트리 클럽과 같이 전락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심방이 온 교인들에게 표본이 되어야 하며 목회자의 임무는 교인들의 전도와 봉사사업을 대신 맡아서 해주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에게 본보기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 평신도 심방

평신도 심방은 근본적으로 목회의 성격을 띄고 있으며, 많은 교회들이 이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의 평신도 심방은 연례적인 교인 총동원 주일을 지키는데나 교인수 증가운동의 한 방편으로 항상 이용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평신도 심방이 전도는 제쳐놓고 교회 재정을 튼튼하게 하는데에만 치중해온 결과로 대부분의 미국교회에서는 60년대 중반부터 지금까지 출석교인수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은 교인들이 심방을 부활하여 더 활성화하자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으며 많은 교회가 교인이 될만한 전도대상자들을 접촉하여 전도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 교회는 이 사업을 통하여 재미있는 통계를 발견하였는데, 전도대상자를 교회로 인도하기 위하여는 평균 일곱번의 접촉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전도 대상자들에게는 목회자 보다는 평신도들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전도 대상자들은 목회자의 자질도 고려하지만 그 보다는 그 교회에 어떠한 교인들이 있는가 하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신도가 전화하거나 접촉하는 것이 교회를 위한 좋은 광고가 된다는 것입니다.

일부 선택된 평신도들은 교육과 훈련을 받은후 예배에 참여하지 않거나 집을 떠날수 없는 교인들을 방문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개인별로 또는 가족단위끼리 좋은 성도의 교제를 나누기도 합니다. 최근에 들어서 연합감리교회의 제자훈련총국의 전도국(Evangelism Unit of the General Board of Discipleship)에는 평신도들을 재 교육시키기 위한 자료에 대하여 많은 요청과 문의가 오고 있습니다.

## 새 자료들

제자훈련총국에는 “보살피는 전도 (Caring Evangelism)”라는 일곱단계의 연수과정이 평신도 심방자들을 위하여 새로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이 연수과정에서는 보살핌과 전도라는 양면을 잘 조화시키고 있으며 각 개인의 간증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나누고 이용할수 있는가 하는 것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들 연수과정에서 쓰여지는 책으로는 Leader's Guide, Participant's Workbook등이 있으며, 감리교 제자총국으로부터 구입할수 있습니다. 이 교제들은 각 연수과정에 필요한 계획이나 자료들, 심방을 위한 교육, 사적인 기록을 잘 지키는 법, “보살피는 전도 팀”을 구성하는 임직에

배당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 어떻게 시작하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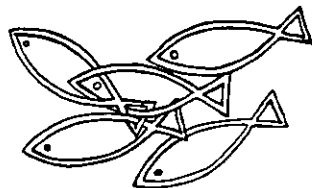
우선적으로 목회자가 교인들에 대한 자신의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시작됩니다. 목회자는 설교를 통하여 성경의 이곳 저곳에 나타나 있는 기독교인의 봉사와 심방과 대화에 관한 많은 예문을 이용할수 있습니다.

심방에는 자원봉사자들이 또한 필요합니다. 주보나 회보에 심방자원봉사자 모집을 알리거나 사람을 대하는 데에 특별히 재주가 뛰어난 교인들을 지명하는 것이 그 방법들입니다. 그래서 지명된 교인들을 설득하여 그 직임을 맡게하고 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일정의 교육이 끝난후 그 자원봉사자들에게 임무를 주게 됩니다. 심방도 목회의 한 방편이기 때문에 그 자원봉사자들은 교회 회중에서 임명되어야하며 그에 따르는 책임 또한 주어져야 합니다. 심방자들은 보다 나은 심방을 위해,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져서 교육을 받고 심방결과를 토론하고 분석하여야 합니다.

심방은 가장 좋은 전도의 한 방편이며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보살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심방은 또한 교회와 이웃들에게 공동체적 연대감을 더욱 깊게 해주는 것입니다.

-로저 스완슨 (Roger Swanson)씀 -



## 지나간 소식

▶금년들어 두번째의 정기교사회의회가 4월 17일 오후 예배후에 이경화권사님택에서 있었습니다.

▶4월 23일에는 합동 임원회가 교회 Chaple에서 있었으며 2/4분기간의 행사에 대한 계획과 토의가 있었습니다. 이 회의에서 떠나시는 이제영 집사님을 대신해서 박민화 집사님께서 교회서기로 선출되었습니다. (웁이 모이는 곳에 지혜도 모입니다.)

▶사랑속의 방현석 집사님께서 지난 4월 20일에 UNM의 기계공학과에서 박사학위 논문을 끝내셨습니다. (자꾸 자꾸 축하합니다. 방현석 박사님!).

▶본 교회 성가대의 친교모임이 5월 1일 조영에 집사님 뒷뜰에서 Pot Luck으로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주일학교와 성가대에서 수고하셨던 이제영, 박명희 두 집사님의 환송연도 같이 있었습니다.

▶5월 8일은 부모님 주일로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카네이션을 준비하여 부모님들께 달아 드렸으며 5월 15일 주일 예배후에는 사회부 주관으로 55세 이상된 부모님들을 모시고 Cedar Crest의 Bella Vista Restaurant에서 경로 잔치도 있었습니다. (훈도는 먹고의 진리인지고...).

▶Taylor Ranch의 Mesa Vista 연합감리교회에서 열렸던 부흥회 예배에 본 교회 김학수 목사님과 성가대가 참가하여 기도와 찬양으로 함께 예배 드렸습니다. (김준호 권사님 말씀: 원 세상에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큰 tent도 있나?, 엄청나게 큰 Tent에서 영건 아히 부흥하였습니다.)

▶5월 23일 부터 26일까지 글로리에타 침례교회 수양관에서 1994년도 뉴멕시코 연합감리교회 연회가 있었습니다. 본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님을 포함해서 다섯명의 임원이 참가 했으며 알버커키 지방 감리사님으로부터 교인수 증가와 주일학교 활동에 대한 표창장도 받았습니다.

▶여선교회의 헌신예배가 이경화 권사님의 "충성된 생활"이라는 제목의 설교로 5월 29일 주일에 있었습니다.

▶6월 23일은 본 교회의 야외예배가 Pine Flat Picnic Ground에서 있었습니다. 예배와 찬

양 그리고 맛있는 식사와 재미있는 게임들로 주님의 동산에서 즐겼습니다. (주님의 동산 = 즐거운 동산).

▶한국 가나안교회 김종일 목사님을 모시고 "1일 부흥회"가 6월 19일 주일 낮과 밤에 있었습니다. 말씀의 내용은 "현대를 위한 욕의 증언"과 "세상의 소금과 빛"이었으며 많은 교우들과 지역사회의 주민들의 참여가 있었습니다.

▶7월 9일에는 본 교회에서 창립예배부터 근 5여년간 반주를 맡아 오셨던 김중규 교우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부군되시는 Dr. De Antonio씨는 New Mexico State University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White Sands Missile Range에서 근무하고 계십니다.)

▶금년들어 세번째의 정기교사회회가 7월 11일 예배후에 김준호 권사님택에서 있었습니다.

▶Trinity UMC에서 개최한 Ice Cream Social에 많은 교우들이 참가하여 시원한 Ice Cream도 즐기고 즐거운 시간도 가졌습니다.

▶7월 23일에는 제 3회 정기합동 임원회가 교회에서 열렸습니다.

▶교회학교 캠프수련회가 청년부원들과 함께 Jemez산속에 위치한 Paliza캠프그라운드에서 7월 29일, 30일 양일에 있었습니다. (They had a God time as well as good time!)

▶8월 20일에는 남선교회의 Annual Garage Sale이 박완영권사님택에서 있었습니다. 이 행사를 통해 555불의 기금이 모였으며 이 중의 대부분은 고국의 농촌에 있는 구곡감리교회에 선교 기금으로 보내졌습니다. (수고특 하셨습니다. God Bless You!)

▶여선교회 계삭회가 8월 21일 주일에, 남선교회의 모임이 8월 29일 주일에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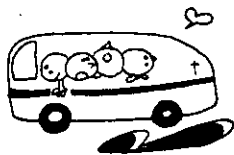
▶8월 28일 주일에는 예배후에 새 등록교인 환영회가 청직부 주관으로 목사관에서 있었습니다.

▶9월 11일은 본 교회 12주년 창립예배로 특별음악순서가 예배중에 있었습니다. 헌악4중주와 특별찬양 그리고 합동 연주와 찬양으로 다채롭게 진행되었으며 예배후에는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으로 공동식사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건물을 사용케 해 주고 있는 Trinity 연합감리교회는 창립 50주년을 맞아 기념행사가 있었습니다. 창립기념행사로 9월 10일 토요일 저녁 회식후 Trinity교회에서 담임하셨던 옛 목사님들을 모두 초청하여 예배를 보았습니다. 본 교회 대표로는 김학수목사님을 위시하여 교우 몇분이 참석하셨습니다.

▶이육희교우와 김명아교우께서 한글학교에서 새로 수고해 주시게 되었으며, 오은혜, 김현아, 김영광, 김천국 교우들께서 새로 성가대에서 수고해 주시게 되었습니다. (저등의 수고를 기억하시며 항상 새로운 용기과 지혜로써 저등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난 6월 박사학위를 받고 귀국하였던 이재영 집사님은 대구에 있는 영남대학교 통계학과에 조교수로 발령받고 근무중에 있다는 기쁜소식을 전해 왔습니다. 편지에서 "저희들 소망에, 기도, 믿음에 응답케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견해를 실천하는 자가 되려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라고 하시며 알버커키 한인 연합감리교회가 하나님에게 사랑받는 교회가 되길 기도드린다고 하시면서 감사헌금을 동봉해 보내 주셨습니다.



알리는 소식

▶본 교회의 공보부에서는 광야의 소리의 원고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의 좋은 기사거리나 자신의 신앙간증, 수필 또는 취미생활 등 다양한 내용을 찾고 있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0월 30일 성례주일에 학습, 세례식에 참여하실 교우는 사무실에서 신청서와 문답집을 받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학습 대상자는 교회 출석 6개월 이상 되신 교우들이시고 세례대상자는 학습받은후 6개월 이상이 되신 교우들입니다.

▶결실의 계절 가을이 돌아 왔습니다. 더욱 모이기에 힘쓰고 항상 기도하며 명상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기원드립니다. (Memorize, Meditate, Study, and Apply).

▶본 교회에서는 매주 일요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자라나는 2세 어린이들을 위한 한글학교가 있습니다. 고국의 문화를 배우고 간직하는 좋은 시간입니다. 관심있는 교우들과 교민 여러분의 참여를 권하고 있습니다.

### 교회 모임 안내

주 일 예 배	주일 오후 2시	예 배 실
교 회 학 교	주일 오후 2시	교 육 관
성 경 공 부	주일 오후 1시	채 폴
속 회	금요일 오후 7시	속 회 별
새 벽 기 도	토요일 오전 6시	채 폴
한 글 학 교	주일 오후 1시	교 육 관

### KOREAN UNITED METHODIST CHURCH IN ALBUQUERQUE



TO: